

지역 특성 반영 한글문화 공간 조성

장수군, '한글놀이터 장수관' 조성 대상지 장수역사전관 선정... 가을 중 개관 예정

장수군의 '한글놀이터 장수관(가칭)' 조성 대상지로 장계면에 위치한 장수역사전관이 최종 선정됐다. 군은 국립한글박물관이 추진하는 '한글놀이터 지역화산 공모사업'에 예비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립한글박물관의 한글 문화 확산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문화 시설과 연계해 어린이와 지역 주민이 놀이와 체험을 통해 한글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세종시에 1호 '한글놀이터'가 조성된 데 이어, 올해부터 전국 단위 공모를 통해 본격적인 지역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한글놀이터 장수관은 장수역사전시관 내에 총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의 정체성과 한글의 가치를 동시에 전달하는 교육·체험 공간을 조성해 올해 가을 중 개관할 계획이다.

장수군은 이번에 조성하는 한글놀이터 장수관을 '자연이 만든 말, 역사가 남긴 이름, 인물이 지켜낸 한글'을 주제로 설정해 장수 출신 한글학자 정인승 박사 등 지역 자산을 접목한 콘텐츠를 운영해 방문객들에게 한글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장수군의 '한글놀이터 장수관(가칭)' 조성 대상지로 장계면에 위치한 장수역사전시관이 최종 선정됐다.

는 계획이다.

또한 국립한글박물관의 '말랑통통 한글 요정' 캐릭터를 활용한 체험형 콘텐츠를 기반으로 장수군만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특화 콘텐츠를 더해 차별화된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여기에 다문화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생활형 한글 프로그램도 운영해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포용형 문화 플랫폼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최훈식 군수는 "한글놀이터 장수관

은 아이들이 신나게 놀면서 한글을 이해하고 한글로 다양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전시체험형 공간이다"며 "앞으로 군민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나아가 전국의 어린이들도 즐겨 찾을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과 한글 콘텐츠를 결합한 새로운 지역 브랜드를 구축하고 어린이와 가족, 다문화가족, 이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공간 조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가 19일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진안군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가계획 반영과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국가계획 반영·국비 지원 요청

전춘성 진안군수, 국토부 장관 면담... 핵심 SOC 사업 반영 건의

전춘성 진안군수가 19일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진안군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가계획 반영과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번 면담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정부의 중장기 교통 인프라 계획 수립 시기에 맞춰 지역 핵심 사업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 군수는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전주~김천 영호남 내륙철도 구축 △전주~무주 고속도로 건설 △월랑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 4건의 핵심 현안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군내 국도와 국지도는 응급·재난 대응 시 유일한 교통망임에도 불구하고 급커브와 급경사 구간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임을 강조하며, 국도 26호선, 국도 13호선, 국지도 49호선 등 총 4개 구간(17.5km)에 대한 도로 개량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도록 건의했다. 또한 영호남을 연결하는 동서축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주~진안~무주~김천을 잇는 '영호남 내륙철도'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으로 반영하고, 노선 내 진입로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지역 간 이동시간 단축과 관광 활성화, 지방소멸 대응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전주~무주 간 고속도로 신설사업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전 군수는 기존 전주~장수~무주 구간 대비 33km를 단축하는 직결 노선 구축을 통해 국가 고속도로망 효율성을 높이고 영호남 연결성을 강화할 수 있다

며,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과 함께 진안용담IC 신설을 요청했다. 아울러 진안을 월랑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는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산골영화제 자원활동가 모여라

'산골친구' 내달 12일까지 모집

초여름 무주의 자연 속에서 열리는 제14회 무주산골영화제가 영화제를 함께 만들어갈 자원활동가 '산골친구' 모집에 나섰다.

무주산골영화제 조직위원회는 19일부터 오는 4월 12일까지 자원활동가

'산골친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산골친구'는 영화제 현장에서 관객과 영화, 공간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아 영화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매년 높은 관심과 경쟁률을 기록해 온 만큼 올해 역시 많은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모집 분야는 마케팅 지원을 비롯해 안내 데스크, 상영관, 티켓부스, 물품보관소, 굿즈샵, 게스트 라운지 운영 및 프로그램, 관객 이벤트 진행 등 총 10개 분야다.

영화제 전 기간 동안 활동이 가능한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무주산골영화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20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무주=손흥기 기자

무주군, 친환경 농업용 미생물 연중 무상 공급 확대

무주군이 친환경 농업 실현과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용 미생물 공급 확대에 나섰다.

군은 120톤 규모의 친환경 농업용 미생물을 직접 생산해 지역 내 농축산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미생물은 EM(복합 유용미생물), 광합성균, 유산균, 해조아미노산, 바실러스균, 질소제거균, 클로렐라 등 총 7종이다.

농업용 미생물은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내 미생물배양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수령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휴일과 점심시간은 제외된다.

운영시간 외에는 배양센터 외부에 설치된 무인 공급 장치를 통해 수령이 가능하다.

기본정보를 등록하면 연중 EM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1일 1농가 기준 60



리터로 제한된다.

또한 센터 방문이 어려운 노약자 등 이동 취약 농가를 위해 무풍면과 안성면 농기계임대사업장에 공급분소에 서도 EM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무주=손흥기 기자

진안군, '우하 들락날락 화합센터' 준공식 열려

진안군은 19일 진안을 군산리 일원의 우하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거점시설인 '우하 들락날락 화합센터'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경영 진안군 부군수, 동청옥 진안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전용태 전북도의원 등 주요 내빈 및 주민 100여명이 참석하였고, 축사, 테이프커팅 및 시설관람 등의 순서로 기념행사가 진행되었다.

우하 들락날락 화합센터는 우하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 중 하나로, 2020년 11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이후 2024년 2월까지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같은해 5월 공사를 착공해 지난해 12월 말 공사를 마무리했다. 총사업비 6,273백만원으로

국비는 3,878백만원, 지방비는 2,395백만원이 투입되었다.

화합센터는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다양한 모임활동 지원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창업지원, 도시재생지원센터원, 전용태 전북도의원 등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복합커뮤니티 시설이다.

시설 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1,361㎡이고 층별 주요 시설로는 △1층에는 주차장(16면), △2층에는 마을카페, 빨래방, 기록물 전시공간, △3층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다목적실, 동아리실, △4층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유 오피스가 들어선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사전교육 실시

장수군은 지난 18일 군청 군민회관에서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190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업 분야에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최소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권침해 예방과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등 필수 준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교육 과정에서 고용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해빙기 대비 취약시설 현장 점검 실시

장수군은 지난 18일 해빙기와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내 급경사지와 저수지 등 취약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지는 해빙기를 맞아 붕괴와 낙석 등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선제적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 대상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동화N1지구, 원안양 저수지 등으로, 군은 인근 주택지 주민 대피 계획과 집중호우 대비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위험요인을 면밀히 살폈다.

특히 동화N1지구는 지난 2024년 도로 낙석이 발생했던 현장으로, 현재 낙석 방지 시설이 설치돼 있으며 추가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해 재발 위험을 최소화하고 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군은 오는 4월 10일까지 토목분야 전문가와 합동으로 관내 급경사지 및 저수지 등 해빙기 취약시설을 점검해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주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아동학대 신고전화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